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차질없이 이뤄지길”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행정통합 후 진통에 지역민 기대와 우려 교차
경기침체 속 민생 어려움·지역현안 해결 요구

추석에 만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민들은 달라진 정국상황에 혹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함께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돼 처음 맞이한 이번 명절에 얼어붙은 경기와 팍팍한 살림살이, 갈수록 피폐하는 농어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분발을 촉구했다.

추석 연휴를 지역구에서 보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7일 페이스북과 전화로 통해 지역민들의 민심을 이같이 전했다.

우선 진보진영의 텃밭답게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호남단계 정국상황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며 “광

주권 반도체단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여전했으나, 미군 군공항 문제 등으로 차질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시장불안,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등을 크게 우려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호남이 지켜야 한다는 방어적 지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위원장)은 “반도체 800조 투자 등 전남광주가 새로운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청사진에 대해 지역민들이 큰 기대감을 보였고, 메가 프로젝트와 통합지원금 20조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길 바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및 메가특구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의 낙후된 산업 지형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컸다”며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확보, 인재양성 등 손에 잡히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



고향의 情 가슴에 담고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고향의 넋넉한 정(情)을 가슴에 담은 귀경객들이 용산행 KTX 열차를 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반도체 팹이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언제쯤 착공하느냐’, ‘지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기대와 주문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는

데도 지지율이 기대 만큼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다”며 “결국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반도체 팹을 이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성공시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정사상 최초 광역통합을 이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안도걸 의원은 “40년 만의 통합 과정에서 청사 문제나 국립의대 유치 등 일시적 갈등과 진통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거시경제 성과가 지방과 서민경제,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통합이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추석 연휴에도 태극전사 뜨거웠던 ‘금빛 메달’ 사냥

추석 연휴에도 태극전사들의 메달 사냥은 뜨거웠다. 2026 아시안·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스케이팅보드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승마와 펜싱, 농구, 카누, 기계체조 등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르며 한가위 안방에 승전보를 전했다. ▶관련기사 16면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강준이(17·서울영등포고)가 스케이팅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승에서 180.85점을 기록,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 스케이팅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다. 두 차례 기술 실패에도 마지막

스케이팅보드·승마·펜싱·기계체조·카누 등 우승
남자 3대3 농구 대표팀 정상·통산 800호 ‘금’ 달성

시기에서 92.40점의 고득점을 받아 역대 최우수상을 올렸다.

같은 날 남동현은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75.190점으로 정상에 올라 한국 승마에 12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앞서 단체인 은메달을 획득한 남동현은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26일에는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일본을 45-44로 꺾고 단체전 4연패를 달성했다. 개인전에서도 우승한 오상욱

은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e스포츠 대전격투 대표팀도 일본을 5-2로 제압하며 첫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농구 역시 일본을 75-70으로 물리치고 1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25일에는 조광희·김효빈이 카누 남자 카약 2인승 500m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기계체조 황서현은 여자 평균대에서 40년 만의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3대3 농구 대표

팀은 카타르를 19-10으로 꺾으며 한국의 역대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을 완성했다.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여서정이 기계체조 여자 도마에서 8년 만에 개인 통산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카누에서는 광주 소속 최민규(국민체육진흥공단)가 조광희·김효빈·장성원과 함께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중국을 0.255초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2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금메달 18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8개 등 총 7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에 자리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내달부터...5개 자치구서 특별시 전역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혜택이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차들은 제2순환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 이 조례는 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됐다.

오는 12월31일까지는 현행 감면율 50%를 유지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감면율을 3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올해는 600원을,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올해 1150원, 2027년에는 1610원을 부담하며 대형차는 올해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감면 신청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16회 광주비엔날레
16th Gwangju Biennale

2026. 9. 5. - 11. 15.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두 도시, 하나의 물결

예술로 물들고 섬으로 잇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Fair Yeosu Korea

2026. 9. 5. - 11. 4.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일원

광주 ↔ 여수

KTX 1 hour

예술과 섬, 1시간 거리

두 여정을 함께 떠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함께 사는 특별시

광주비엔날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